

#### (4) 물산장려운동

초기 청년단체는 민족의 지력, 체력과 아울러 경제적 실력을 키워야 한다고 보았다. 청년단체 안에는 실업부 혹은 이재부가 설치되었으며, 1922년 말 이래 고조된 물산장려운동에 동참하였다. 1922년 말부터 조선청년회연합회는 물산장려에 관한 표어를 공모하는 등 본격적으로 물산장려운동의 기운을 북돋웠다. 청년회연합회 집행위원들은 물산장려회와 민립대학기성회의 간부로 활동했으며 각 지방의 청년단체들은 실행기관 역할을 담당하여 강연활동과 물산장려를 선전하는 시위운동 등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였다. 같은 맥락에서 1923년 2월 24일 순천청년회는 토산장려 강연회를 개최하였다. 500여 명의 청중이 모인 가운데 청년회장 서병규가 사회를 보고 김양수가 연사로 나서 열변을 토하였다.

그러나 청년단체는 산업 진흥의 필요성을 계몽, 선전하는 것 이상의 구체적인 방안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더욱이 민족 대다수가 절대 빈곤에서 허덕이는 상태에서 빈곤을 초래한 정치적·경제적 구조를 근본적으로 고치지 않는 한 '산업 진흥', '토산품 애용'의 구호는 공허한 메아리로 그칠 뿐이었다.

이런 까닭에 서울청년회를 비롯한 사회주의적 성향의 청년층 사이에서 물산장려운동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기 시작했다. 1923년 2월부터는 신문지상에서 물산장려운동에 대한 찬반논쟁이 전개되었으며, 1923년 3월에 개최된 전조선청년당대회에서는 '물산장려운동을 박멸할 것'을 결의했다. 물산장려운동이 중산계급의 '경제상 현상유지의 이기적 운동'일 뿐만 아니라, '계급의식을 말살하려는 음모의 운동'이며 '물산장려의 영향으로 토산물이 등귀하여 무산자는 현실생활에서 구매력이 더욱 참담'하게 된다고 하였다.<sup>1)</sup>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1920년대 초 청년단체는 지방문화의 중추기관이 되어 교육열을 높이고 신사상을 보급하며, 민족의 지적 수준과 민중의 각성을 높이하고자 활동하였다. 그러나 청년단체들도 적극 동참한 물산장려운동, 민립대학설립운동이 별다른 성과를 얻지 못한 채 결국 실패로 돌아가고 문화운동 전반이 침체상태로 빠져들자 청년들은 그 한계를 뛰어넘는 새로운 대안이 필요했다.

---

1) 이강, 「조선청년운동의 사적 고찰」중, 『현대평론』 1-9, 1927.10, 21쪽.